

‘여수시·여수유족회·지역사회연구소’ 여순사건 신고 연장 환영

미 신고 대상자 발굴 등 피해 접수 적극 나서 공감대 형성 사업 추진·법령 개정 등 힘쓸 것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여순사건 여수유족회(회장 서장수)·여수지역사회연구소(이사장 이영일)와 함께 희생자 유족 신고기간 연장에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15일 여순사건 법 시행령 개정으로 올해 1월 20일 마감됐던 희생자 유족 신고기간이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됐다. 이에, 여수시는 여수유족회·지역사회연구소와 협조해 신고기간 연장 홍보와 신고 독려 및 상담 지원, 미신고 대상자 발굴 등 피해 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또한 여순사건의 명확한 진상규

명을 위해 현재 2년으로 규정된 조사기간의 연장 조사를 인력 확충을 정부에 적극 건의하는 등 신속한 희생자 유족 결정 지원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여순사건 인식 전환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도 여순사건 바로알기 교육, 아카이브 운영, 심포지엄 등 다양한 후속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희생자 유족 명예회복의 기회가 다시 주어진 만

큼 기한 내 꼭 신고해주시기 바란다”라며 “신속한 사실조사와 더불어 유족에 대한 생활지원금 지원, 배·보상 근거 마련 등 여순사건법령 개정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여순사건 피해신고에 희생자 유족 2천32건과 진상규명 31건으로 총 2천63건을 접수했으며, 신고사항에 대해 2024년 10월 까지 사실조사를 추진 중에 있다.
/최종민 기자

곡성, 일상회복지원금 1인당 20만원 지급 27일부터 6월 말까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서 신청

곡성군(군수 이상철)이 군민을 대상으로 1인당 20만 원씩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
일상회복지원금 대상자는 올해 3월 12일 24시 기준으로 곡성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군민(영주권자, 결혼이민자 포함)이다.
지급 대상자는 오는 27일부터 6월 말까지 신청서와 신분증 등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에게는 20만 원 상당의 곡성심청상품권이 지급된다.
하지만 지급기준일 이후 관외 전입자, 지급기준일 이전 사망자, 주민등록 말소·거주불명자, 재외국민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에서는 신청 기간 동안 읍면 행정복지센터 접수처를 상시 운영하고, 세대주 신청 시 세대별 일괄 신청이 가능하도록 해 일상회복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평일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들을 위해서는 주말 사전예약제를 마련해 군민의 편의를 높였다.
또한 마을로 찾아가는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한다. 마을 담당 공무원과 이장이 2인 1조로 조를 편성해 거동이 어려운 장애인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정방문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곡성군은 이번 일상회복지원금을 통해 코로나19 재난과 장기적인 고물가, 고금리 등 경제 악화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군민들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상철 곡성군수는 “이번 일상회복지원금을 통해 코로나와 고물가·고금리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군민들의 가계에 부담이 덜어지고, 군민이 예전의 안정된 생활을 회복해 행복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심선섭 기자

구례군, 전 공직자 대상 중대재해 예방 직무교육

구례군은 최근 섬진아트홀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예방 및 안전보건 의무 이행’에 관한 공직자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재해 발생 유형을 분석하고 사례 중심의 교육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 직원들의 중대재해 사전 예방조치 및 대응능력을 강화하고자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산업재해 발생원인 및 대책 ▲관리감독자 지위와 역할 ▲작업장 위험 요인 예방 및 대책 ▲산업현장 중대재해 사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에 관한 사항이다.
산업안전보건공단 광주광역시본부 양정열 센터장이 강의했고, 유휴광부군수를 비롯한 팀장급 이상 관리자 및 전 직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광양시는 최근 중마동 일대에서 광양교육지원청, 광양경찰서, 광양시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과 함께 청소년 유해환경 방지 캠페인을 하고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광양시 제공

광양시, 청소년 유해시설 합동 단속 나서

광양시는 최근 중마동 일대에서 광양교육지원청, 광양경찰서, 광양시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과 함께 청소년 유해환경 방지 캠페인을 하고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 단속은 최근 변종 룸카페 등의 청소년 출입과 관련해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어 신변중 청소년 유해업소 현황을 파악하고 불법 사항 발견 시 철저한 사후조치를 통

해 청소년 보호와 일탈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단속에 앞서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환경과 청소년 보호법의 이해, 감시단의 역할 등 사명감·책임의식 제고를 위한 역량 강화교육도 실시했다.
이번 활동으로 중마동 권역의 변종 룸카페,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PC방 등 70여 개 업소를 지도 점검

했으며, 특히 자유업, 일반음식점 등을 운영하면서 관련법을 회피해 청소년 안전을 위협하는 신변중 룸카페 운영 현황을 집중적으로 파악했다. 또한,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 내용 표시 의무 위반 점검,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청소년이 유해약품(술, 담배 등)을 구입하려는 경우 신분증 확인 철저 등을 지도했다.
/최종민 기자

순천, 찾아가는 전입신고 현장민원실

대학(원)생 전입장려금 최대 50만 원 지원 등 홍보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대학교 개강 시기에 맞춰 지역 내 미전입 실거주자들의 주민등록 이전을 독려하고 인구정책 시민 홍보를 위해 ‘찾아가는 전입신고 현장민원실’을 운영한다.
‘찾아가는 전입신고 현장민원실’은 실제 순천에 살고 있으면서 주소를 옮기지 않고 있는 대학생들의 전입을 돕기 위해 마련됐으며, 14일 순천대학교를 시작으로 순천 제일대, 청양대학교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현장에서 시 보육아동과 인구출산정책팀과 인근 읍면동 전입신고 담당자가 함께 접수해 전입신고서를 잘못 작성해 읍면동에 재방문해야 하는 일이 없도록 했다.

특히 전입 혜택, 월세 지원, 청년 문화복지카드 등 청년이 받을 수 있는 홍보물도 함께 배부해 그동안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던 대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순천시 관계자는 “대학생들이 전입지원과 월세 지원 등 시책을 적극 활용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순천시 민으로서의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사업 발굴 및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시는 타 지자체에서 관내로 전입한 순천시 소재 대학교에 다니는 대학(원)생에게 지역상품권 최대 50만 원을 지급하며, 이 외에도 전입축하물품(종량제봉투), 2인 이상 세대에 이사용품 구입비도 지원하고 있다.
/최종민 기자

· 사단법인 영광법성포 굴비 보존협회 회원업체
· 전라남도 지정 영광굴비특산물사업단 회원업체
· 영광수협 중매인 18년

2代째 이어온 전통방식의 명품굴비

축가네 경성굴비

국내산 참조기만을 엄선하여 1년이상 간수가 빠진 천연소금으로 간하고 해풍과 습도가 알맞은 영광 법성포에서 건조하여 그 깊은 고유의 참맛을 유지하였습니다.

대표 이경률

매장 : 전남 영광군 법성면 연우로3
공장 : 전남 영광군 흥농읍 상단길2길 48

주간 061) 356-2173 야간 061) 356-5932
팩스 061) 356-4215 문자 010-8604-1486
핸드폰 010-3624-2173 / 010-3833-2173
농협 351-1092-5533-13 예금주 : 이경률